

지역 소식통

이윤성 한국농업경영인 부안군연합회 회장 취임

(사)한국농업경영인 부안군연합회는 30일 하서 청호수 마을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진행했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권익현 부안군수, 한농연 역대회장 등 40여명이 참석해 전임 회장의 공로를 격려하고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이윤성 신임회장은 "이임회장 및 임원단들에게 감사드리며 어려운 농업 여건 속에서 한농연 부안군연합회 회원들과 더욱 단결하고 지혜를 모아, 당면한 농업현안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농업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그동안 제18대 최은석 이임회장이 농업·농촌 발전에 숭선수범하여 애써주셨다"며, "부안군에서 추진 중인 농촌의 공익자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서 확대간부회의

고창군이 지난 29일 고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2층 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평이근민(平易近民)의 자세로 군민을 섬기는 행정"을 다짐했다.

고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2년전에 착공해 공사진행 중 환경기초시설 중복설치에 따른 환경오염과 건강을 우려하는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난관에 부딪혔으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한 바 있다.

회의에는 유기상 고창군수를 비롯 과·관·소장과 읍·면장 등 참석했다. 회의에서 유기상 고창군수는 "언제나 군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고민하는 자세만으로도 문제의 절반이 해결된다"며 "민선 7기 고창군정의 공적자는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민을 섬기는 행정으로 더 친근하게 군민속으로 들어가 군민과 울려퍼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 내수면 양식어가 지원

5억4000만원 투입, 양식장 시설 개보수·수산자원 증식 등

정읍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내수면 양식어가 지원에 5억4,000만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수산물 소비가 감소한데다 양식 사료의 가격 상승과 경영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내수면 양식 어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취지다.

우선, 1억5,500만원을 들여 102개 어가에 펌프와 수중 모터, 수차 등 기자재 195대를 지원한다. 이러한 양식시설 지원을 통해 생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1억1,000만원을 들여 수산자원 증식 등을 통한 토속 어류의 부가가치 창출에도 나선다. 이의 일환으로 메기 와 다슬기, 붕어, 동자개 등의 경제성

어종 치어 약 90만 마리를 지역 내 하천에 방류할 계획이다.

시는 또 5천2백만원을 들여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에 대비할 수 있는 청정 지하수를

개발하고 전기와 보일러, 수조 등 노후 된 양식장 시설 개보수에도 5천만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양식장 질병 예방을 위한 소독제와 수질 정화제(2,000kg) 지원 등에 4,900만원을 투입하고, 2,760만원을 들여 46개 어가에 어가당 60만원의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시는 이외에도 어업인 신문과 친환경 에너지 보급과 정전 통보기 등의 스마트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어업인 복지 향상과 어가의 생산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이와 별도로 자체 예산 3,500만원을 들여 뉴시터 화장실을 친환경 화장실로 개선하는 등 유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쾌적하고 깨끗한 하천 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읍은 풍부한 수자원을 기반으로 한 전라북도 내수면 어업의 중심지로 현재 약 100여 명이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이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양식어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정읍의 내수면 양식 환경에 맞는 시책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양식 어업인의 소득 창출과 함께 내수면 양식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태환기자

“서해안 철도 건설해 지역균형발전 앞당겨야”

고창군, 5개 자치단체 국가 철도망 구축 공동 건의문 채택

유기상 고창군수가 “서해안 철도를 건설해 지역균형발전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날(29일) 오후 영광군청에서 서해안 철도 경유지인 고창, 부안, 무안, 함평, 영광군 5개 자치단체장이 참석해 가운데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서해안 철도 건설을 반영 하도록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서는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은 장항선을 목포까지 연장해 서해

안 산업·물류·교통 SOC구축을 통해 한반도 新 경제지대 3대 경제벨트 중 하나인 서해안권 경험벨트의 완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새만금 국제공항과 무안국제공항의 이용율을 높여 국가 기반시설간 상승작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잠재 유망성을 연결하는 철도 체계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서해안 철도는 군산-새만금-부안-고창-영광-함평-무안-목포를 연결하는 141.4km 구간으로 2조3066억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이다.

고창군을 비롯한 서해안 철도 5개 자치단체에서는 실무협의를 거쳐 자치단체장의 공동건의문 채택까지 도달했다. 앞으로 관계부처에 건의문을 전달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유기상 고창군수는 “서해안 철도가 건설되면 수도권 중심의 교통집중을 분산하고 대량수송과 물류비 절감 등을 통해 침체되고 낙후된 서해안권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벚꽃 명소 축제 취소

정읍의 대표적인 벚꽃 명소인 정읍천 일대와 내장산 저수지 주변에 벚꽃이 피어 절정을 향해가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예전보다 포근한 날씨로 지난해보다 개화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정읍천변과 내장산 벚꽃 터널 등 정읍의 벚꽃 명소가 분홍빛으로 물들고 있다.

정읍천변 벚꽃길과 단풍생태공원에서 내장산으로 들어가는 길목의 벚꽃 터널은 정읍의 대표적인 벚꽃 나들이 명소가 꼽힌다.

특히, 정읍천변 벚꽃길은 개천 따라 흐르는 물소리와 함께 가족이나 연인끼리, 또는 친구들과 손잡고 소소한

애기를 나누며 여유롭게 거닐기 좋다.

또, 내장산저수지 주변 벚꽃 터널은 새하얀 벚꽃과 노란 개나리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며 드라이브 명소로 손색이 없다.

여기에 따사로운 봄 햇살을 받은 저수지 수면도 반짝반짝 빛을 내며 정취를 더한다. 시는 매년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축제를 열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축제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들의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기 위해 벚꽃이 만개한 정읍의 아름다운 봄 정경을 영상으로 제작해 온라인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정읍=김태환 기자



부안군은 지난 25일 양 어업인 대표들이 만나 상생·협력을 위한 어업자 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어업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상생·협력 어업자 협약 체결

부안군, 연안조망 조업구역 설정 등 어업 분쟁 해결

부안군 연안 해역에서 꽃게를 잡는 연안조망 어업인과 꽃새우를 잡는 연안조망 어업인의 조업구역 등의 어업 분쟁이 해소됐다.

군에 따르면 지난 25일 양 어업인 대표들이 만나 상생·협력을 위한 어업자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고 어업분쟁을 해결했다.

그동안 매년 5월이면 부안 앞바다에는 꽃게·갑오징어 등 어군이 형성되고 연안조망(동력 어선)이 그물을 끌어서 꽃새우를 잡는 어업) 어선의 조업이 시작되면서 바다 밑에 깔아 놓은 연안조망 어구를 훼손·손실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군은 어업조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쳤으며 이해당사자 이견이 조율돼 분쟁해결에 동의하고 연안조망 및 연안조망 대표자들이 협약서에 최종 서명했다.

주요 합의 내용으로는 5월 한달간 연안조망 조업구역을 설정하고 어구의 부설은 한 방향으로 부표가 쉽게

확인되도록 했으며 어구 손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도록 했다.

또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어구 손실 등에 따른 보상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연안어업인의 어구 손실 감소와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협약 체결 이후에도 어업인간 자율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어업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권익현 부안군수 “앞으로도 어업인의 입장에서 이용하기 쉽고 신뢰할 수 있는 어업분쟁 조정을 통해 어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적극적인 수산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은 29일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연안조망 어선의 조업구역을 연도, 말도, 왕도등을 잇는 꽃새우 중심어장에서 전북도 연해로 확대했으며 올 하반기부터 어업면허 처분이 가능한 어장이용 개발계획을 수립을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외국인 근로 사업장 전수검사 ‘전원 음성’

정읍시가 지난 19일부터 30일까지 외국인 근로 사업장 90개소 572명에 대해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 음성으로 나타났다.

이번 검사는 최근 3밀(밀폐·밀접·밀집) 환경에 노출돼있는 취약사업장에서의 외국인 집단감염과 관련, 지역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실시됐다.

시는 특히 선별진료소(정읍시보건소, 아산병원) 방문이 쉽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모두 9개소의 이동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검사 참여를 이끌어 냈다. 공중보건과의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선별진료반을 구성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근무하는 정읍제2산업단지 인근인 하북동 근린공원과 8개 읍면(신대인, 태인, 고부, 영원, 덕천, 소성, 입암, 북면) 보건지소에 이동 선별진료소를 운영했다.

시 관계자는 “이동선별진료소 운영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적극적인 검사 참여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사업장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3월 환경에 노출된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정읍=김태환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